발간자료

• **전략 Weekly:** 기술적 부담 해소 과정을 경험할 가능성은 존재. 그러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당장 유의미한 수준의 하향 조정을 우려할 상황은 아님. 금리 상승만큼 멀티플도 낮아져 있는 상황. 조정이 있다 해도 7,000pt 부근에서는 적극 매수 필요. 현 사이클의 중추가 되는 반도체, IT H/W 비중을 크게 축소하기는 어려움. 주도주의 기술적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순환매 양상은 전개 가능. AI 밸류체인 내에서 확산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통신장비, 2차전지, 신재생 업종에 관심. 내수에 대한 기대치도 기존 대비 강화되고 있어 소매/유통 업종도 관심
(전략 조병현)

• **CJ대한통운_BUY/14만원:** 1Q26P 매출액 3.2조원(+7% YoY, 이하 YoY), 영업이익 921억원(+8%), 컨센서스 11% 하회. 택배사업 투자와 중동전쟁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발생. 다만 하반기 택배 물량 증가와 중동전쟁 관련 비용 판가 전가를 통한 연간 실적 만회가 기대됨. 주7일배송 런칭과 마찬가지로 2회전배송도 택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필수 서비스임. 하위업체와의 간극은 더욱 확대될 전망. 투자의견 Buy, P/E 11배 적용. 적정주가 14만원 유지
(운송 오정하)

• **JYP Ent_BUY/8.7만원:** 1Q26 매출액 1,860억원(YoY+32%), 영업이익 334억원(YoY +70%, OPM 17.9%)으로 어닝 서프. 스키즈 서구권내 구보 판매 확대에 따른 음반 및 MD 매출 서프 영향. 투어연계 팝업, IP 라이선싱 확대 등 MD 매출 전략의 유의미한 초기 성과 확인. 향후 전사 IP로 확대 도입 통해 MD 매출의 단발성이 아닌 구조적인 우상향 가능성. 스키즈 차기 투어 MD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향 전망
(엔터 임도영)

• **한국금융지주_BUY/40만원:** 1Q26P 연결기준 지배순이익 9,149억원(QoQ +162.1%)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자회사들의 투자자산 기반 이익체력과 높은 ROE 정당성 입증. 현재로서는 여전히 밸류 부담 적은 구간 지속되며 경쟁사 대비 이점
(금융 김지원)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91.7%	HOLD : 8.3%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